

4월 지육시세는 3,950원/kg 예상

신학기와 3월이 되면서 국내 경기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하여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소비시장도 지난해 수출기업들의 호황과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연말 상여금을 두둑하게 지급하면서 봉급 생활자를 중심으로 연초 소비가 증가되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매출이 전년대비 10~15%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좋은 징조를 보이고 금년부터 수출이 둔화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 각종 거시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호전될 좋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양돈 쪽에서 보면 원화가치가 절상되면서 원 달러 환율은 1,000원 이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서 돈육 수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돈육 수입량 증가 추세로 볼 때 금년돈 수입예상량은 약 15만 톤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캐나다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일본과의 소고기 수입협상이 재개되고, 일본이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게 될 경우 우리



권혁만 팀장
(주)선진하미물 모돈계열팀

나라에도 소고기 수입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는 수입 돈육과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의 대체품 역할을 하면서 돈가는 하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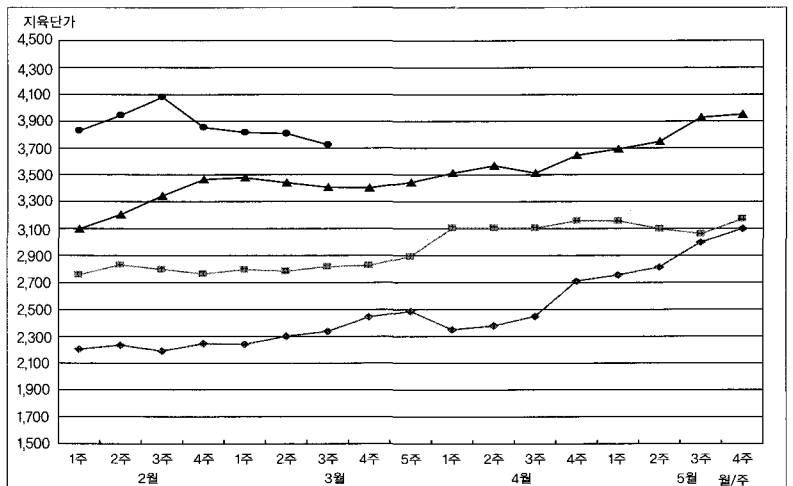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양돈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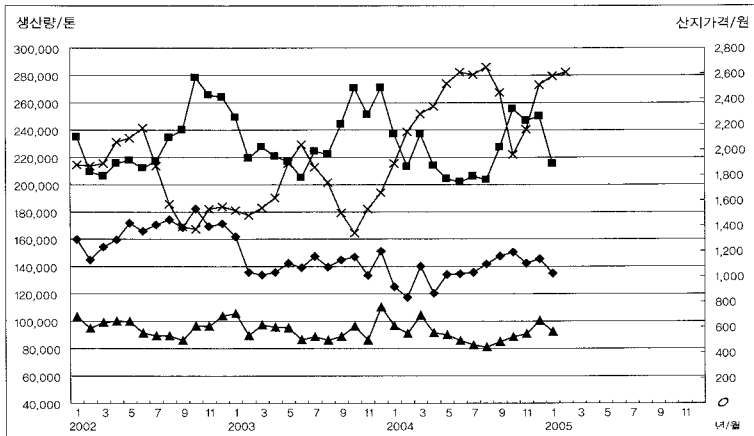
4P(PED, PRRS, PMWS, PRDC)등의 돼지 질병으로 출하 육성율이 크게 떨어뜨려 양돈 산업 전체의 재편을 압박하고 한국 양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사육 농가수가 크게 감소하고 호당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양돈의 돈사 내 사육밀도 증가에 따른 각종 만성 호흡기 질병의 증가와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양돈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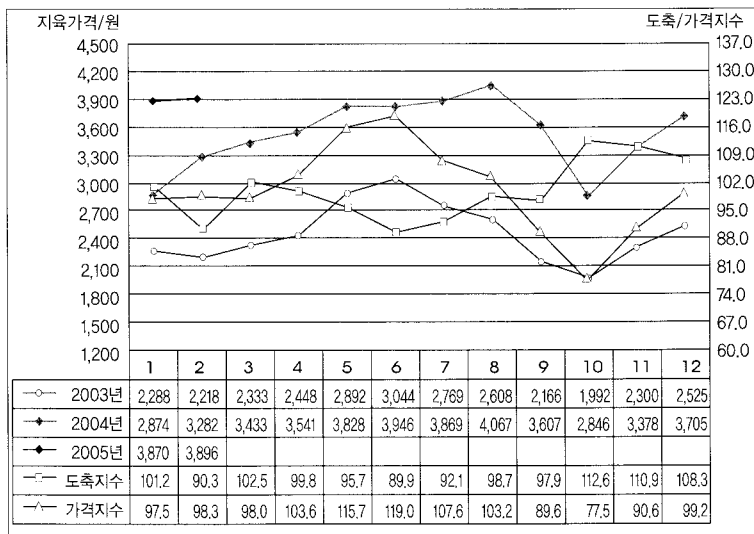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 기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리나라가 양돈의 4P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돼지고기 자급율은 70~80%대로 급락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2005년 1월의 양돈 사료 생산 동향을 살펴 보면 당분간의 돼지 출하두수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출하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인기부위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0~80%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냉장육을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는 돼지고기 냉장육으로 인기부위를 할인 행사 등을 통하여 겨우 소진시키고 있다.

4월부터는 봄철 행락의 증가와 건설 현장의 작업개시 등으로 소비가 되살아 나면서 공급의 부족과 소비증가에 따른 돼지가격의 강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돈육 수입량이 전년 4배나 증가하여 수입돈육 증가 추세와 소비 정도가 돈가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수입돈육 중 삼겹살의 수입량은 3월 10일까지 20,185톤으로서 냉동 삼겹살의 국내 유통가격을 6천원대로 낮추어 놓아 국내 돈육가격의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2005년 4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지육단가는 3,950원을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돈

우리나라 양돈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의 고돈가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올인 아웃 시설을 만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사육 시스템(2-Site, 3-Site사육)을 준비 하여야 할 시점이다.

출하두수는 금년 1월부터 3월 2주차 까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218,148두로 전년 동기 약 27.6% 줄어 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3월 10일까지 39,528톤으로 전년동기 319%증가 하였고 그 중 삼겹살은 20,185톤을 차지하여 향후 우